

“이제는 세계선수권 2연패”

1박 2일 체류 마친 김연아 토론토 재출국 훈련 돌입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한국인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피겨여신’ 김연아(20·고려대)가 ‘금빛 기쁨’을 잠시 접어두고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향한 도전에 박차를 가한다.

김연아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여자 싱글 최고점(228.56점)으로 우승하면서 지정한 ‘피겨여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그랑프리 파이널과 4대륙선수권대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올림픽까지 정상에 오르며 ‘피겨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김연아로서는 차치 ‘동기 부여’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연아는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올림픽 우승의 상승세를 발판으로 또 한 번 ‘한국인 최초’의 기록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김연아는 2일 귀국하고 나서 1박2일의 짧은 국내 체류 일정을 끝내고 곧바로 3일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간다. 김연아의 다음 목표는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2010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는 것이다.

김연아는 토론토에서 잠시 휴식하고 나서 곧바로 훈련에 복귀, 밴쿠버에서 보여준 ‘기적의 연기’를 토리노에서 또 한 번 펼칠 예정이다. 토리노는 김연아에게 기분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다. 2007년 12월 토리노에서 치러진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아사다 마오(일본)를 2년 연속 제치고 2연패를 달성했던 기분 좋은 기억이 서려 있다.

김연아는 오는 20~21일 사이에 토리노에 도착해 현지 적응을 마치고 나서 26일(소프트프로그램)과 27일(프리스케이팅) 이틀 동안 동안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오서 코치도 ‘금메달 포상금’

정부포상금 등 부수입 7,500만원 째질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연아를 지도한 브라이언 오서 코치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포상금을 받는 등 적지 않은 부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이번 대회 참가 선수단에 지급하기로 한 금메달 4천만원, 은메달 2천만원, 동메달 1천200만원 등 포상금은 지도자의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포상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서 코치는 김연아를 지도한 공을 인정받아 포상금 3천만원을 받게 됐고 이견회 전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는 1천5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오서 코치가 이미 확보한 부수입만 7천500만원 정도가 된다. /연합뉴스

김연아 한국인이 뽑은 동계올림픽 MVP

김연아가 한국갤럽이 실시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국민 인식 조사’ 설문에서 이번 대회 가장 훌륭한 선수로 뽑혔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표본오차 ±4.4%, 신뢰수준 95%) 김연아가 83.8%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이번 동계올림픽 MVP로 뽑혔다고 2일 발표했다.

김연아는 대부분 계층에서 80% 내외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남자(78.2%)보다 여자(89.4%)가 더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선호도도 높았다.

또 김연아가 금메달을 확정지은 프리스케이팅 경기 때는 응답자 중 85.2%가 “생중계로 경기를 시청했다”고 밝혀 대부분이 경기를 지켜보며 함께 응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남자 1만m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금메달을 따낸 이승훈(22·한국체대)이 36.8%의 지지를 받아 김연아에 이어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로 꼽혔다.

사상 처음으로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500m 금메달을 획득한 모태범(21)과 이상화(21·이상 한국체대)가 각각 23.4%와 9.7%로 뒤를 이었다. 쇼트트랙 선수 중에는 거듭된 불운 끝에 은메달 2개에 머문 성시백(23·용인시청)이 8.9%로 2관왕 이정수(22·단국대, 4.0%)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합뉴스



신지애 vs 미야자토 한·일 ‘지존 대결’

5일 일 골프개막전 나란히 출전

지존 신지애(22·미래에셋)와 일본의 골프 영웅 미야자토 아이(25)가 일본여자프로골프 2010시즌 개막전에서 맞붙는다.

5일부터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 류큐 골프장에서 열리는 제23회 다인킨 오키드 레이디스(총상금 8천만원)가 그 무대로 둘은 지난달 28일 싱가포르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를 마치고 나란히 일본으로 이동했다.

이번 시즌 LPGA 개막 두 대회를 석권한 미야자토의 기세가 등등하지만 신지애 역시 태국에서 열린 LPGA 투어 개막전 공동 22위에 이어 싱가포르 대회 공동 3위를 차지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시즌 세 번째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오키나와 출신인 미야자토의 출전으로 많은 갤러리 대회장을 찾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지애 역시 지난해 12월 한일 대항전 때 같은 골프장에서 경기를 치른 경험이 있어 코스 적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회에는 2008년 우승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 일본 투어 신인왕 송보배(24)·안선주(23)·박인비(22) 등도 출전하며 이지희(31)·전미경(28) 등 일본 무대 베테랑들도 우승에 도전장을 던졌다.

한편 서희경(24·하이트), 유소연(20·하이마트) 등은 4일부터 나흘간 호주 퀸즐랜드 골드코스트의 로열파인스 리조트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ANZ 레이디스 마스터스(총상금 60만 호주달러)에 출전한다.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0시즌은 지난해 12월 중국 서면에서 열린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오픈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2010년 달력을 넘긴 뒤에 공식 경기 출전은 서희경·유소연 모두 이 대회가 처음이다.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깊은 대회로 2006년 양희영(21)이 우승했고 2007년 신지애, 2008년 신현주(29), 2009년 유소연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2009시즌 KLPGA에서 상금왕, 다승왕, 대상 등을 휩쓸며 최강의 자리에 군림한 서희경과 지난해 서희경의 ‘대항마’로 나섰던 유소연의 대결이 이번 대회 관전 포인트다. 골프 전문 채널인 J골프가 5일 오후 2시, 6일과 7일은 오전 10시부터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0시즌은 지난해 12월 중국 서면에서 열린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오픈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2010년 달력을 넘긴 뒤에 공식 경기 출전은 서희경·유소연 모두 이 대회가 처음이다.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깊은 대회로 2006년 양희영(21)이 우승했고 2007년 신지애, 2008년 신현주(29), 2009년 유소연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2009시즌 KLPGA에서 상금왕, 다승왕, 대상 등을 휩쓸며 최강의 자리에 군림한 서희경과 지난해 서희경의 ‘대항마’로 나섰던 유소연의 대결이 이번 대회 관전 포인트다. 골프 전문 채널인 J골프가 5일 오후 2시, 6일과 7일은 오전 10시부터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바람의 아들’ 양용은 혼다클래식 2연패 도전

“한 시즌 동안 여러 대회에 출전하다 보면 마음에 딱 맞는 코스가 있다. PGA내셔널 골프장이 그런 곳인데 웬지 가슴이 탁 트인다는 느낌이 든다.”

‘바람의 아들’ 양용은(38)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 PGA내셔널 골프장 챔피언 코스(파70·7천158야드)에 1년만에 다시 선다. 4일 이곳에서 개막하는 혼다클래식은 양용은이 PGA 투어 진출 이후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대회다.

양용은은 이 대회에서 우승하고나서 더욱 충만해진 자신감으로 같은 해 8월 메이저대회인 PGA챔피언십까지 제패하며 정상급 선수의 길을 걸었다.

위창수(38·태일라메이트), 앤서니 김(25·나이키골프)도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광주 동강대 축구단 창단...U리그 참가

11일 전북 서남대와 데뷔전

동강대(총장 류재민) 축구단이 2일 대학 소강당에서 창단식을 갖고 정식 대학팀으로 활동하게 됐다.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 선수 출신 박승수 씨가 초대감독으로 임명된 동강대 축구단은 주장 기사일 등 선수 19명으로 구성됐다.

동강대축구단 노재성(사회체육계열 교수) 부장은 “2년제 대학 축구팀의 활성화와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팀을 구성했다”면서 “고교때 정상급 선수들은 아니지만 실전 경험을 쌓아 4년제 대학진학 등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창단 배경을 밝혔다.

이로써 동강대팀은 오는 11일 전북 서남대와 경기를 시작으로 국내 U-리그에 참가한다. U-리그는 전국 67개 대학이 6개 권역으로 나뉘어 리그전을 펼치며, 각 권역별

상위 5개팀과 와일드 카드 2개팀 등 32개팀이 오는 11월 32강전을 치르게 되는 전국대학축구대회이다.

지난 1995년부터 3년간 전남드래곤즈 선수로 활약했던 박 감독은 서울 둔촌중-고창북고 감독을 맡아오다 동강대팀 지휘봉을 잡게 됐다. 박 감독은 “당분간 전북 신대인에서 훈련을 할 계획이다”면서 “올해는 신생팀으로서 리그 참가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



3월(수)

▲V리그 <도룡공사 : GS칼텍스>, <LG손보 : 신한생명>(18 : 40·KBSN SPORTS)

▲프로농구 <금호생명 : KB국민은행>(16 : 50·SBS스포츠), <삼성 : KT&G>(19 : 00·MBCESP)

현충선의 칠서화 전시회

첨투리로 그린 달빛워지!!

입석000 그림속 그림

장수 : 52 광주일구문화재단
일시 : 3월 3일 - 12일
문의 : 062-854-8951
016-275-9705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대학교 부동신원문헌정보국
(부동신원문헌정보국 국학기원)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대학교 부동신원문헌정보국
(부동신원문헌정보국 국학기원)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대학교 부동신원문헌정보국
(부동신원문헌정보국 국학기원)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한문지도사(1기)	한문지도사(2기)	한문지도사(3기)
연수기간	2010. 3. 15(월)~4. 15(수)	2010. 3. 15(월)~4. 15(수)	2010. 3. 15(월)~4. 15(수)
수강료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수강신청	2010. 3. 15(월)~4. 15(수)	2010. 3. 15(월)~4. 15(수)	2010. 3. 15(월)~4. 15(수)
수강신청처	한문지도사(1기)	한문지도사(2기)	한문지도사(3기)
문의처	한문지도사(1기)	한문지도사(2기)	한문지도사(3기)